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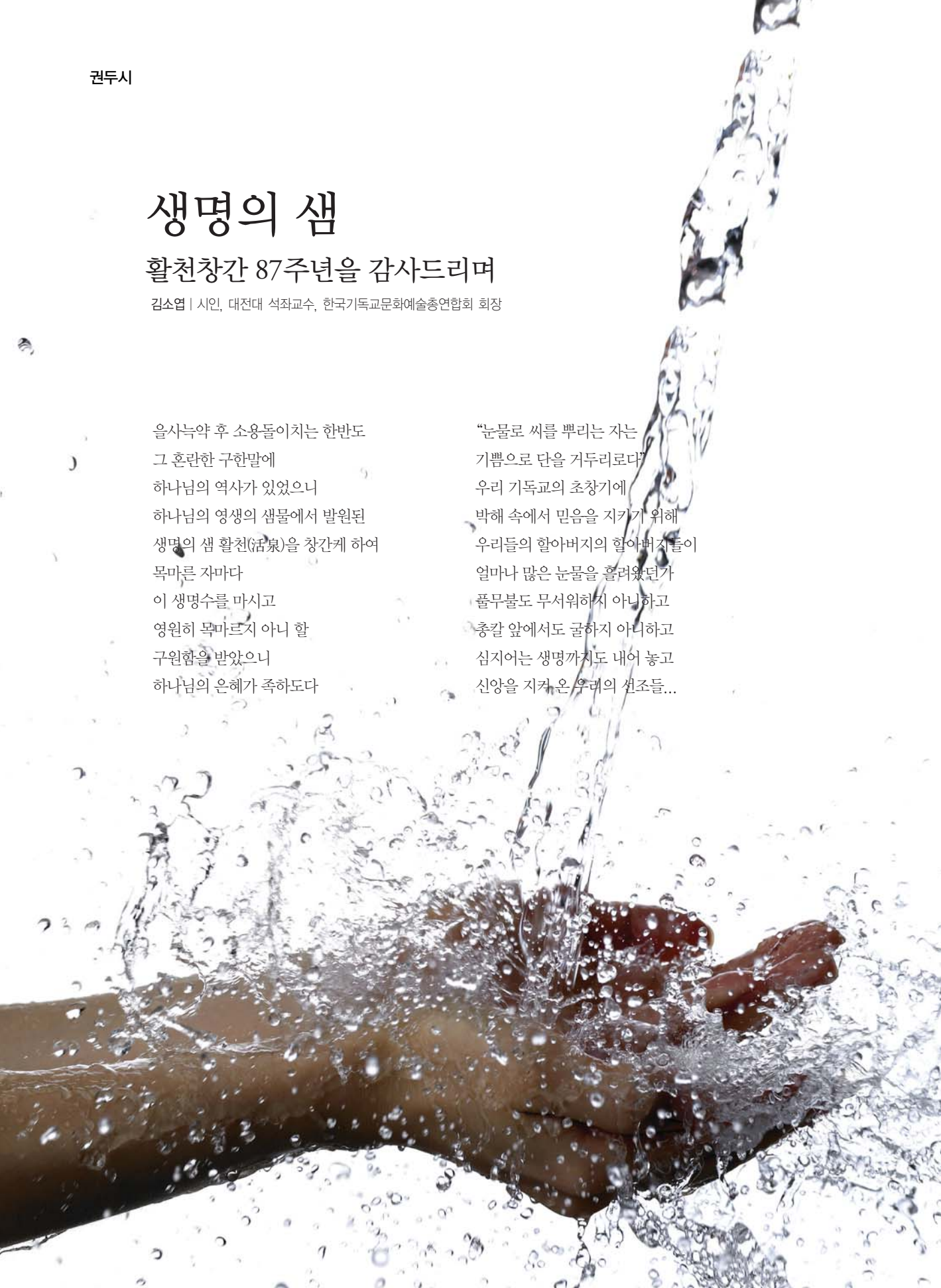
생명의 샘

활천창간 87주년을 감사드리며

김소엽 | 시인, 대전대 석좌교수,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

을사늑약 후 소용돌이치는 한반도
그 혼란한 구한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영생의 샘물에서 발원된
생명의 샘 활천(活泉)을 창간케 하여
목마른 자마다
이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할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에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던가
풀무불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 놓고
신앙을 지켜 온 우리의 선조들...



일제의 모진 박해 속에서
더욱이 우리글과 말의 말살 정책 속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보존하여
문서전도와
기독교문학의 지평을 열고자
기독교 잡지를 창간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으니
이 활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어언 87년, 구순(九旬)을 눈앞에 두고
성결문학, 활천문학 등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니
이 어찌 아니 감사하라

이 활천을 통해서 설교말씀과

성경말씀과 찬양과 복음이
문학과 신학논단과
성지순례 기행과 간증문학과
지역 지회 소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신앙 사랑방이었고
신학 지식의 보고였으며
성도님들 소식과 정보의 터전이었네

그 동안 이 사랑방을 거쳐 간 분들
살펴보면 한국 개신교 역사가
활천을 통해서 구비 구비 흐르고 있네
역사를 증언하는 살아 있는 강은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과 땀을 싣고서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네

바라옵기는
활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살아 있는 샘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더 많은 기도와
더 간절한 소원으로
활자마다 산소 같은 사랑으로
자손만대 이어가며
더 많은 영혼의 갈급함을 풀어주는
진정한 생명수가 되기를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드리세 